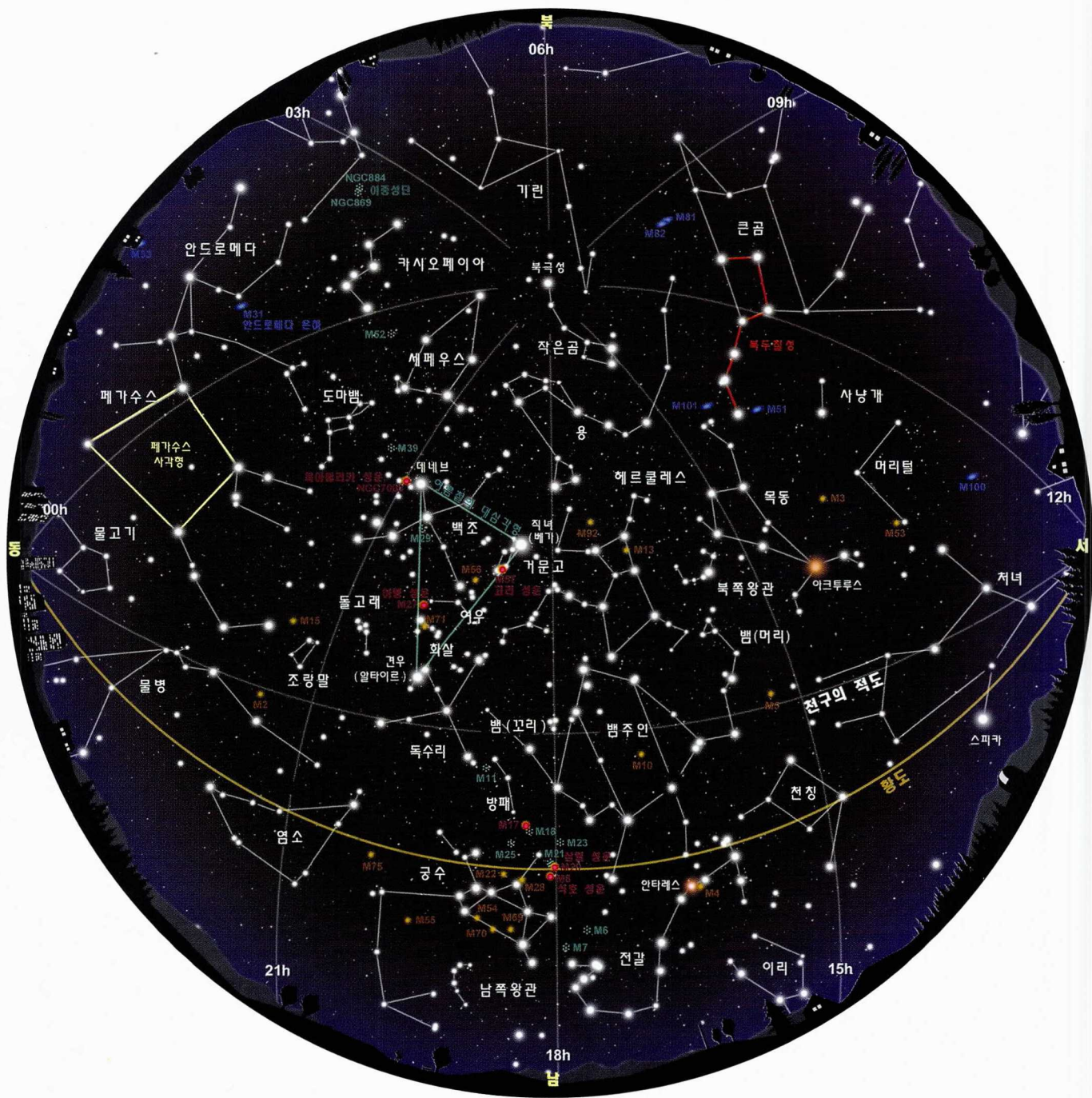


7·8월의 밤하늘



※ 성도 사용법

이 성도에는 6.5등급보다 밝은 별과 주요 성운, 성단, 은하, 달, 행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보통의 지도와 달리 성도에서는 동쪽과 서쪽이 바뀌어 있다. 따라서 밤하늘의 별자리와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성도를 위로 들고 성도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사용한다.

성도에서 보이는 밤하늘은 7월 1일 24시, 8월 1일 22시 기준이다.

성도 범례	
● 1등급	※ 산개성단
● 2등급	● 구상성단
● 3등급	● 성운
● 4등급	● 은하
● 5등급	
● 6등급	

주요 천문 현상

7월

4일	01:37 상현 08:00 지구 원일점(1.016742AU) 11:00 수성 유(동-서)
7일	14:51 소서(태양 황경 105°) 04:00 목성 유(서-동)
11일	12:02 망
18일	04:13 하현 16:00 수성 내합
20일	04:53 토왕용사(태양 황경 117°)
23일	08:18 대서(태양 황경 120°)
25일	13:31 합삭
29일	02:00 수성 유(서-동)

#토왕용사(土王用事) : 각 계절 끝에 해당하는 기간인 토왕지절(土旺之節)의 첫째 되는 날. 태양이 황경 27도, 117도, 207도, 297도의 위치에 올 때이다.

8월

2일	17:46 상현
7일	10:00 수성 서방최대이각(19°) 21:00 토성 합
8일	00:41 입추(태양 황경 135°)
9일	19:54 망
11일	14:00 해왕성 총
13일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극대(ZHR:80)
16일	10:51 하현
23일	15:23 처서(태양 황경 150°)
24일	04:10 합삭

#ZHR : 6등성까지 보이는 밤하늘과 복사점이 천정에 있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1시간 동안 관측되는 유성의 수. 실제로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이보다 적다.

◎ 8월 새벽 하늘의 행성 랑데부

8월 한 달 동안 새벽 동쪽 하늘에서는 행성들 간의 멋진 랑데부가 펼쳐진다. 첫 번째 주인공은 11일 하늘의 수성과 금성이다. 이날 새벽, 밝게 빛나는 금성의 2' 12" 아래로 수성이 뒤를 따른다. 21일에는 수성과 토성이 각거리로 보름달의 겉보기 크기(약 30')와 비슷한 35'까지 접근한다. 다만 관측 가능 시간일 때 고도가 낮아 관측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이라이트는 27일 새벽의 금성과 토성이다. 둘 사이의 각거리는 약 10'! 천체 망원경을 이용하여 50배 정도의 배율로 관측한다면 원에 가까운 모습의 금성과 고리를 두른 토성의 모습을 한 시야에 볼 수 있다.

◎ 8월 13일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극대

사분의자리 유성우, 쌍둥이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로 꼽히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올 8월 13일을 전후로 극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성기구(IMO)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극대 시각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13일 오전 8시에서 10시 30분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 상 국내 관측 조건은 좋지 않다. 또한 보름이 지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달이 밤 새 하늘에 떠있다. 그러나 극대 시각을 전후로 24시간 정도는 활동이 활발하므로 12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는 평소보다 많은 수의 유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의 경우 최대 ZHR은 90개 정도였으며, 극대 시각 24시간 전의 ZHR도 60개를 넘었다.

▶ 8월 중 행성간 접근 모습

